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1년 3분기(7, 8, 9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7~9월)에는 총 13건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아래 <표1> 참고).

이 가운데 국제신문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김민정·박수현 기자), KNN <다 통한다더니...시작 전부터 빠격> 외 1건(김상진 기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이지수 기자)를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번호	매체	보도
1	KBS부산	백종헌 의원 아들 명의 농지 투기 의혹 외 1건 (공용조 기자)
2	KBS부산	신고리 설계온도 상황, “환경적 영향 검토해야” 외 1건 (이이슬 기자)
3	부산MBC	자전거·마을버스 운용 실태 점검 보도 3건 (조민희 기자)
4	부산MBC	박수영 의원, 비서관 성매매 알고도 재채용 외 2건(김유나 기자)
5	부산MBC 빅벙커	아이가 사는 집 1, 2부
6	KNN	모래 채취선 침몰, 낙동강 ‘기름 범벅’ 외 1건(최한솔 기자)
7	KNN	다 통한다더니...시작 전부터 빠격 외 1건(김상진 기자)
8	국제신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기획보도(김준용 기자)
9	국제신문	산업재해 Never Again 기획보도 (배지열·박호걸·김민주·이지원·신심범 기자)
10	국제신문	폐플라스틱 습격, 바다의 비명 기획기사(김민정·박수현 기자)
11	부산일보	부산 무연고 사망 10명 중 7명 ‘연고’ 있었다 외 6건 (이상배·탁경륜 기자)
12	부산일보	늦은 배웅-코로나19 사망자 애도프로젝트 (오금아·김준용·이대진·서유리 기자)
13	MBC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이지수 기자)

<표1> 부산민언련 2021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 및 선정작

■ <국제신문>,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국제신문 1면에 등장한 해양쓰레기 문제
인터랙티브 기사 통한 공론화 의지 돋보였다



국제신문은 9월 23일 자 1면과 6·7면을 통해 부산·경남에 흐르는 강과 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시작은 부산시민에겐 신공항 예정지로 익숙한 가덕도였습니다. 페트병, 어업용 밧줄 등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룬 가덕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남 통영, 경남 거제 해수욕장의 상황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을숙도에선 새들이 폐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이 주목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자갈해변에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 수작업으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현실과 바다로 이어지는 낙동강 하구에 강물과 함께 도착하는 쓰레기들은 적은 예산 탓에 100여 명의 인력이 수거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거에서 끝나지 않고 운반과 처리, 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해당 기획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문제를 통해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필요성을 말했고 해양 폐기물 관련 법률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짚었습니다. 또한 글 기사에 데이터저널리즘, 그래픽, 사진, 동영상을 더해 인터랙티브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 해상케이블카, 인공섬 조성, 해저터널. 모두 해양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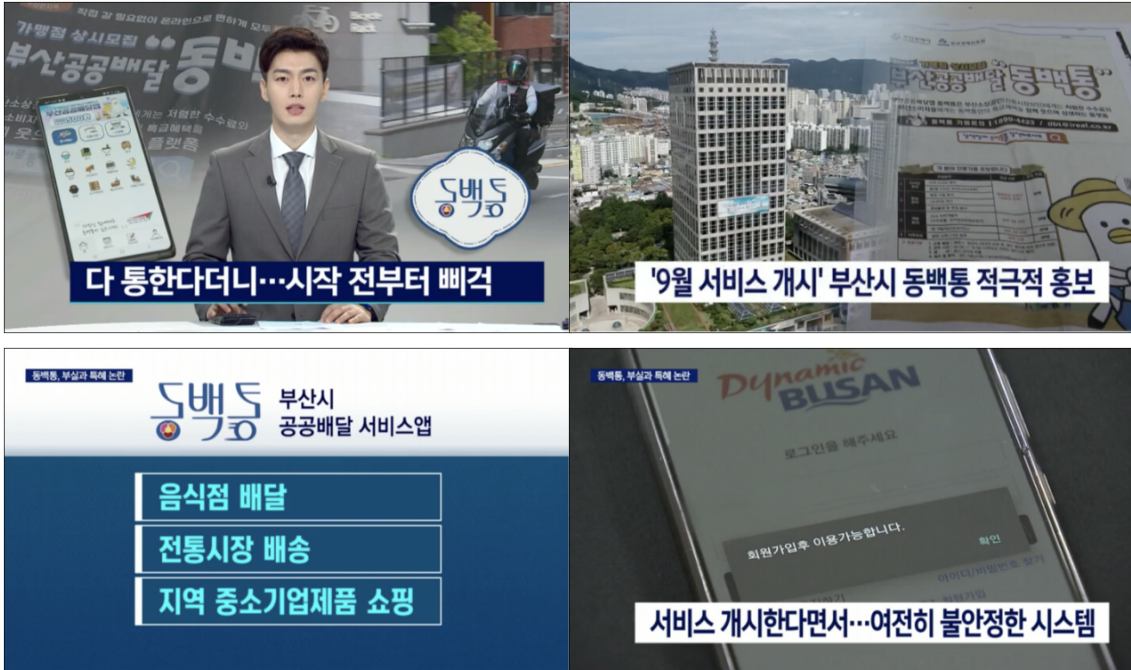
함께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육지의 개발담론이 해양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신문은 창간 74주년 기획 중 하나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의 주요면에 배치해 독자의 관심을 환기했을뿐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은 인터랙티브 기사로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에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을 3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합니다.

[보도 목록]

1. <해양 먹이사슬 타고 식탁 오른 플라스틱>(9/23, 1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923.33001005346>
2.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상> 플라스틱 섬 <을숙도.가덕도 뒤덮은 '쓰레기 산'...수거 예산 11년째 그대로>(9/23, 6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923.22006002024>
3. <해안 폐플라스틱 관리 안 하면...80년 뒤 연안 82% 미세플라스틱 오염>(9/23, 6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923.22006002982&kid=k28834>
4.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하> 죽음의 바다 <폐어구 미세플라스틱, 조개·생선에 축적돼 고스란히 인체 속으로>(9/23, 7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923.22007005311>
5.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100% 대체...부산선 '드론모니터링' 시범사업>(9/23, 7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923.22007005310>
6. [인터랙티브 기사] 미세플라스틱의 습격 바다의 비명
<http://www.kookje.co.kr/page/plastic-pollution/>

■ <KNN>, <다 통한다더니...시작 전부터 삐걱> 외 1건

동백통 운용능력 점검하고 특혜 시비 짚어
부산시민 이용편이에 초점 맞춘 KNN



KNN은 9월 1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부산시가 9월 서비스 개시를 예고한 부산시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부산시가 일간지 광고면을 통해 적극 홍보해 온 동백통에 대한 첫 취재보도였습니다. 기자는 시정 홍보대로라면 획기적인 플랫폼이라며 실제로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시도하는데서부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KNN 보도를 통해 동백통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무색하게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고, 식당의 위치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부산 전체 식당이 검색되는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백통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시점이었기에, 광고를 보고 사용을 마음 먹은 부산시민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KNN은 동백통 민간위탁운영자가 직접 배달서비스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고 있는 특혜 시비, 전통시장 물품배송 공언했으나 실제 입점 전통시장은 3곳에 불과한 점, 포스단말기 이용료가 별도로 발생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 등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부산시 공공배달앱 동백통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환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언론에서도 동백통 보도가 이어졌고 부산시는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며 개통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부산시의 홍보성 보도자료에 기반해 기사를 쓰기 보다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어플을 설치해 사용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시장상인의 입장에서 동백통을 점검해 플랫폼의 내실보다는 홍보에 주력한 시정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다 통한다더니...시작 전부터 삐걱> 외 1건 을 3분기 좋은보도로 선정합니다.

[보도 목록]

1. <다 통한다더니...시작 전부터 삐걱>(9/18, 뉴스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v=y6aKOcKZjQU&t=55s>
2. <배달앱 '동백통', 소비자 혼란 가중>(9/22, 뉴스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v=kk33IEkBJXM>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건설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신문사 사업시스템 점검 통해 구조적 문제로 조명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9월 5일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지역언론과 건설사의 유착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공장 부지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대표와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지역언론 사장이 투자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사 사장이 얻은 투자조합 참여 기회 자체가 개인 투자가에게는 흔치 않은 혜택이며, 무엇보다 언론사 사장이 건설사 대표와 투자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사 사장과 건설사 대표 개인의 문제로 취재를 끝내기 보다는 언론사와 건설사의 '공생네트워크'에 주목해 구조적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유착의혹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사장의 연결고리로 독자위원회와 부산일보 CEO아카데미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독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인 독자위원회 위원의 64%가 기업인이라는 점과 긴장관계를 가져야 할 지역인사들이 언론사 아카데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이번 유착 의혹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나아가 이러한 지역언론과 건설사 간 유착이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지역 민방과 지역 대표 건설사 소유가 된 언론사들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권력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 그 언론이 지역의 여러 권력들과 자사 사

업을 연결고리 삼아 결탁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지역사회가 언론개혁에 나서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를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보도 목록]

1.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9/5,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xzBUDz3Ycio&t=1738s>

■ 2021년 3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KBS부산 ‘백종헌 의원 아들 명의 농지 투기 의혹 외 1건’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가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종헌 의원에게 대한 감시보도로, 7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시의적절한 보도였을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시의원 시절 얻은 정보를 활용한 증여 의혹 등 정치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의혹을 현장 취재를 통해 심층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0193>

KBS부산 ‘신고리 설계온도 상향, “환경적 영향 검토해야” 외 1건’은 한수원이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를 수온상승 등을 반영해 31.6도에서 34.9도로 높이려 했지만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보류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역 원전 문제가 사후약방 문식 보도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변경에 관심을 가지게 한 보도였습니다.

[대표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9247>

부산MBC ‘자전거·마을버스 운용 실태 점검 보도 3건’은 어반루프, 하이퍼튜브 등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자전거,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점검해 부산시민 중심의 보도를 보여줬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선 자전거 도로의 폭과 길, 보관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0원’인 현실과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라서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짚었습니다. .

[대표 기사] <https://busanmbc.co.kr/article/0FJSKNesWqNZWXxibwM>

부산MBC ‘박수영 의원, 비서관 성매매 알고도 재채용 외 2건’은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의 대표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이 비서관의 성매매 적발사실을 알고도 다시 채용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박수영 의원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 보도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성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하는 정치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표 기사] <https://busanmbc.co.kr/article/eLyyXyZ9m8gQfos>

부산MBC 빅벙커 ‘아이가 사는 집 1, 2부’는 아동주거권에 주목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거복지예산 대부분이 환경개선(도로, 공원 정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어 아동 주거권 실현을 위한 별도 예산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산·대구의 주거취약 아동 실태를 직접 취재하고 고발함으로써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표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CuThRGM6mU&t=138s> (1부)

KNN ‘모래 채취선 침몰, 낙동강 기름 범벅 외 1건’은 80톤급 모래 채취선이 침몰해 400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어 4대강 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knn.co.kr/238685>

국제신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기획보도’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후손회 회원 신상 카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에 맞춰, 한국의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힘든 삶을 조명하여 제도적 허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해 원폭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805.33001001366>

국제신문 ‘산업재해 Never Again 기획보도’는 집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매일같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현실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 기획입니다. 배달, 물류센터, 어선원, 공장노동자의 위험한 노동 현장을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하였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824.33001006149>

부산일보 ‘부산 무연고 사망 10명 중 7명 연고 있었다 외 6건’은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7명은 실제로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경제적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장례’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공영장례’와 관련한 부산시, 16개 구군의 조례를 점검하고 타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자 한 보도입니다.

[대표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1819231986486>

부산일보 ‘늦은 배웅-코로나19 사망자 애도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의 아픔을 진정성 있게 취재해 담아냈습니다. 지역신문의 의미있는 지면 사용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 시립미술관과의 협업도 돋보였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2617194445485>

- 끝 -